

◇경동맥과 관상동맥 협착을 동반한 환자의 수술적 치료

심 상 석, 김기봉, 안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배경 및 목적 : _ 관상동맥우회술 대상환자들의 약 5%에서는 중증의 경동맥 협착을 동반하며, 이러한 경동맥 협착은 관상동맥우회술후 뇌졸중과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의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방법 : _ 본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 대상환자에 대한 수술전 평가로 경동맥에 대한 duplex scan을 시행하기 시작한 1992년 5월부터 1998년 4월사이에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468례의 환자들 중 관상동맥우회술과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8례[1.7%]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_ 모두 8례의 환자에서 관상동맥우회술과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남자가 7례, 여자가 1례였다. 나이는 평균 63.7 ± 6.7 세[범위:54-73세]였다. 경동맥에 70%이상의 현저한 협착이 있거나 뇌혈관계 증상을 동반한 경동맥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일측성이 7례, 양측성이 1례 였다. 1례에서는 단계적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7례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과 동시에 시행하였다. 경동맥 성형술은, 7례에서는 자가 심낭막을 이용하였으며, 1례에서는 대복재정맥 절편을 사용하였다. 관상동맥우회술은 내흉동맥과 대복재정맥을 이용하였으며, 환자당 평균 3.7 ± 0.5 개를 연결하였다. 수술후 사망은 없었으며, 합병증으로는 미만성 저산소성 뇌증과 종격동염이 각각 1례였다. 추적기간은 평균 25.4 ± 26.2 개월[범위:4-63개월]이었다.

결론 : _ 관상동맥과 경동맥협착이 동반된 환자의 치료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70%이상의 현저한 협착이나, 증상이 있는 유의한 경동맥 협착이 동반된 고위험군의 환자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과 경동맥 내막절제술 및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뇌졸중과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책임저자:김 기 봉(서울대학교병원) 발표자:심 상 석(서울대학교병원)